ESG 뒤집어보기

7가지 오해와 진실

김광기 ㈜ESG경제 대표

한국ESG평가원

연사 소개

- 2020년~ ㈜이에스지경제, 한국ESG평가원 대표
- 1990~2029년 : 중앙일보 논설위원, 경제연구소장,
  경제에디터, 포브스코리아 대표
- 1987~1990년 : 증권감독원 조사부, 국제업무국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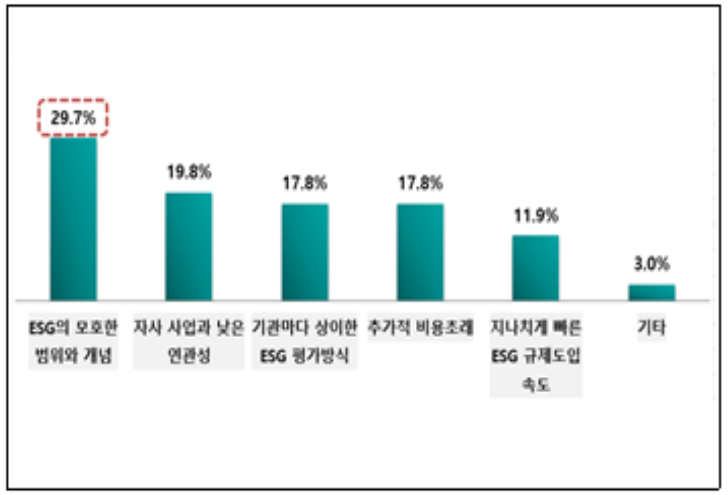
- 왜 지금 ESG 인가?
- ESG에 대한 오해와 진실
- ESG 측정·평가와 투자
- ESG 경영을 잘 하려면

ESG 논의 봇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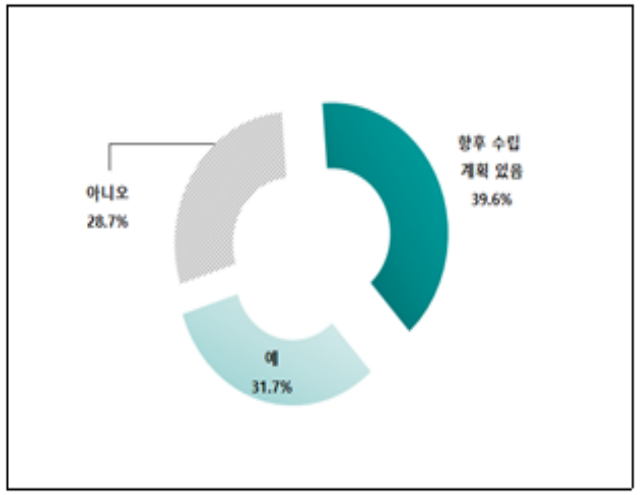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기업 경영의 비재무적 요소들
- 요즘 어딜 가나 ESG
- 대통령, 국회ESG포럼, 정부 부처, 경제단체, 기업, 금융기관, 학계, 언론…
- 선택이 아닌 필수 ?
- 유행이 아닌 대세 ?
- 법제화, 표준화, 의무화 ?
- 경제 &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대전환 ?

CEO들에게 물어보니 (전경련 500대 기업 설문, 4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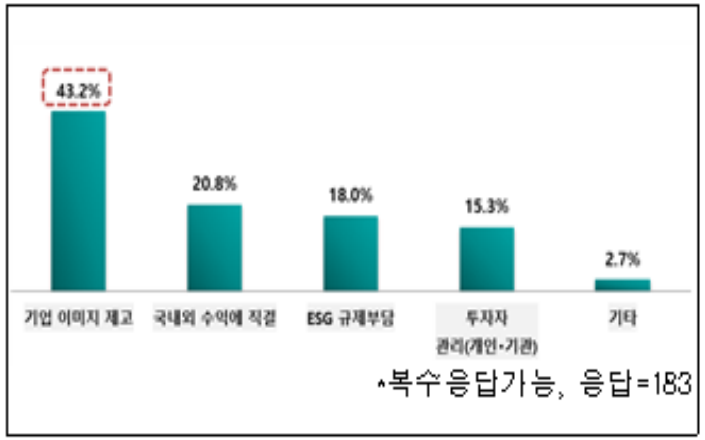
<ESG 전략수립 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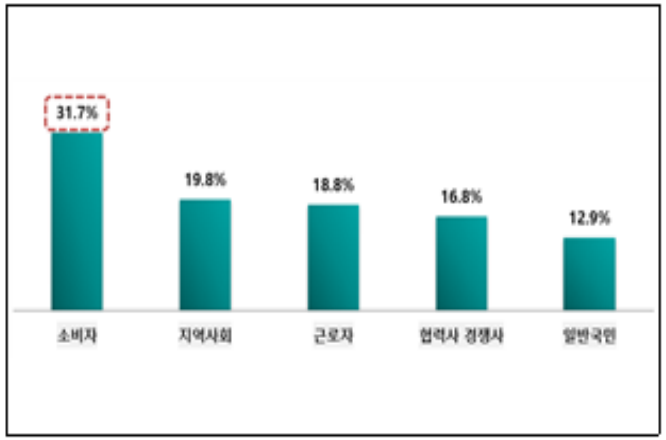
<ESG 경영성과 연간 목표 수립 여부>



<ESG가 필요한 이유>



<사회 분야 활동 주요대상>



"개념을 잘 모르겠다."

"그래도 하긴 해야겠다."

"이미지가 손상될까 봐."

"소비자들이 좀 알아줬으면."

① ESG, 거품 인가?

- 올들어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 열풍
- "2021년이 기업 경영 ESG 확산의 원년"
  (문재인 대통령, 3월31일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결정적 계기라는데…
- 2021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연관?

➔증시의 ESG투자 테마, 언론의 과열 보도

➔한국 특유의 체면문화

"70% 정도의 거품 존재"

"그 중 절반은 워싱(washing)"

"30%가 뿌리내려 건강하게 존속하며 재확산"

한국ESG평가원

ESG의 역사

- 2006년 유엔 PRI(책임투자원칙)에 ESG 용어 첫 등장

  -세계의 주요 연기금과 금융기관 등 3000여 곳 서명

  -현재 이들의 총 운용자산 100조 달러 상회

PRI의 6대 원칙

1. 투자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이슈를 적극 반영한다.
2.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된다.
3. 투자대상에게 ESG이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4. 금융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5. PRI의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6. PRI의 이행에 대한 세부활동과 진행사항을 공개한다.

ESG의 확산

-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사회적 불평등 심화. 미 MZ세대 70% “사회주의 동경 "
- ✓ 2015년 파리기후협약 발효 : 기후변화 관심 고조
- ✓ 2015년 유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발표
- ✓ 2015년 이후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ESG 논의 확대
- ✓ 2016년 미 트럼프 행정부, 파리협약 탈퇴. 미중 패권전쟁 점화
- ✓ 2019년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 연례서한 통해 ESG 주문 시작
- ✓ 2019년 미국 BRT,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
- ✓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관심 고조, ESG투자 급증
- ✓ 2021년 미 바이든 행정부, 파리협약 복귀…그린뉴딜, 기후정상회의 주도

결정적 계기… 미국의 동참

- 블랙록의 주주서한 등 월가의 ESG 행동주의

  -래리 핑크 회장, "탄소배출·양극화 등 환경·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 하는 기업 주식은 팔거나, 적극적 의결권 행사로 지배구조에 개입하겠다."

- BRT(미 전경련)의 '이해관계자 중시 경영'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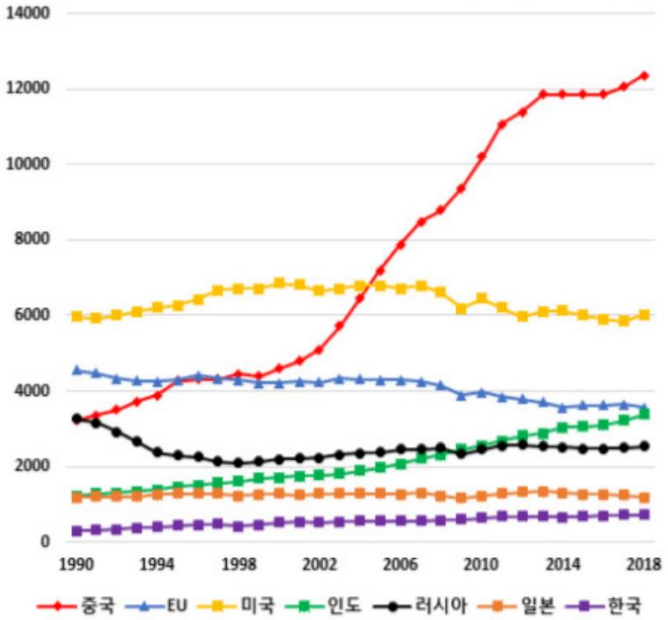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 주도권 다툼
  "중국 때리기의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로 부상 "

- 그린뉴딜 재정투입, 민간+기업 참여 활기
  "환경 테마와 임팩트 투자에 돈이 흘러든다 "

→ 기업과 투자자의 장기 안정적 수익 극대화의 길…
  "결론은 돈 되는 기회의 場"

그림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단위: 백만 톤 CO_2 eq.)



② CSR과 ESG, 뭐가 다른가?

- CSR의 진화

-자선적 활동 → 사회적가치(SV) 창출 → 일상 비즈니스와 통합한 사회책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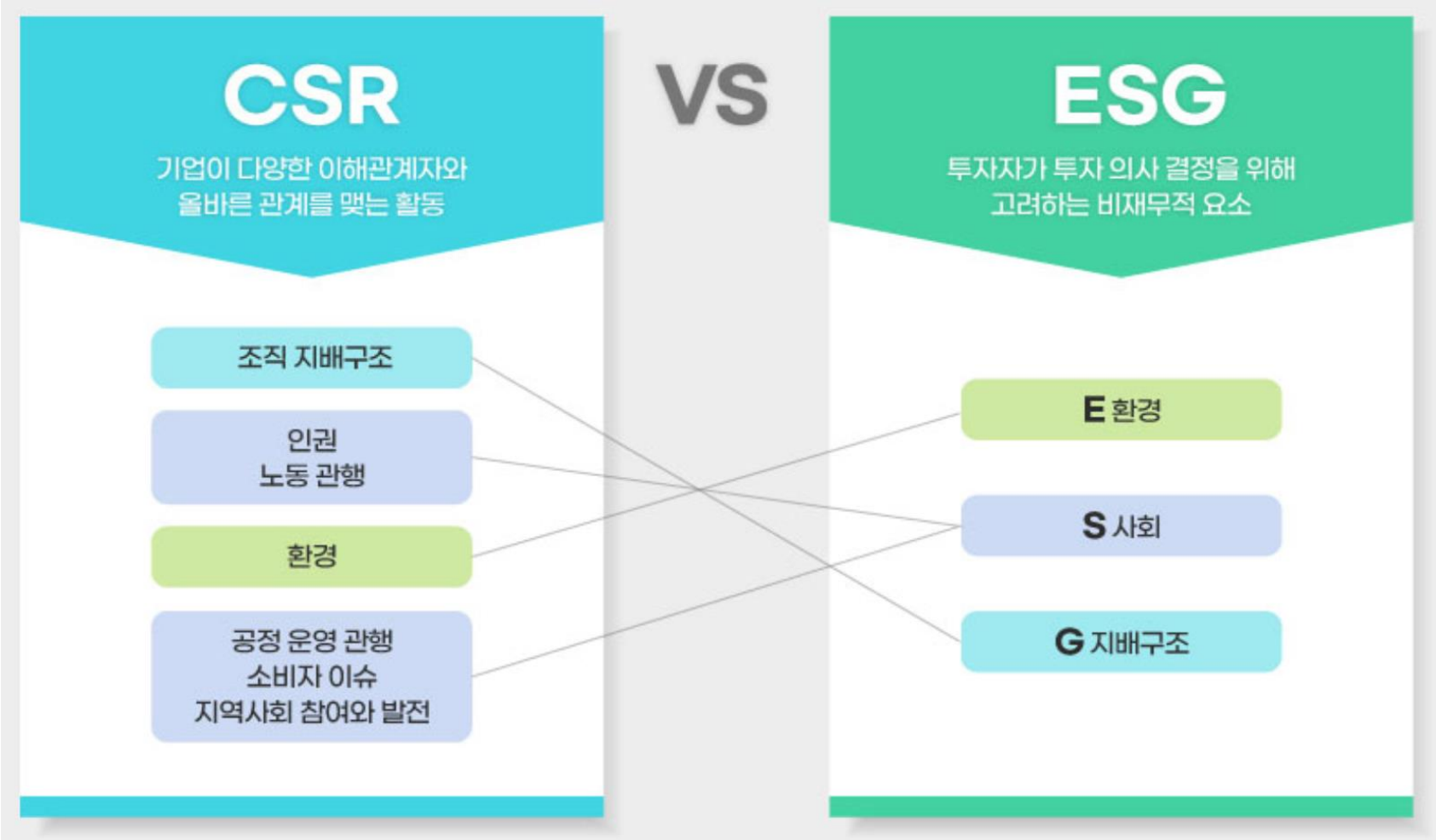
- CSR의 국제표준(ISO 26000) 규정

①조직 지배구조(Organizational Governance)
②인권(Human Rights) ③노동 관행(Labor Practices)
④환경(Environment) ⑤공정운영관행(Fair Operating Practices)
⑥소비자 이슈(Consumer Issues)
⑦지역사회 참여와 발전(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등 7개

- ESG 3요소를 이미 포괄

"관점의 차이"

기업의 관점 | 자본시장의 관점



ESG경영과 ESG투자

지속가능(ESG)경영

기업이 지속가능(ESG)경영의 전체적인 구조를 제대로 인식하고 구조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개선, 유지, 높이려는 경영 활동

ESG 투자

지속가능(ESG)경영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루기 보다는 투자하는 개별 기업의 지속가능성, 특히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리스크 대응 부분을 강조하여 평가하고 투자하는 방식

자료 : 이노소셜랩

③ ESG는 ‘착한 기업’ 되기?

- ‘착하다’의 개념
  “언행이 곱고 순하고 바르고 상냥하다 "
  -(조건없는) 양보, 희생, 솔선, 배려의 의미 내포

- ‘바르다’의 개념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들어맞다“
  -자연과 사회의 순리(진리)에 따름. 정직, 공정의 의미 내포

➔ “투자·금융의 세계에서 ‘바른 기업’으로 인정받기”

④ ESG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 이해관계자(stakeholder)
  : 주주(shareholder), 임직원, 소비자, 협력업체, 지역사회(국가), 채권자…

-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공동결정제도' – 종업원도 기업의 주인으로 이사회에 동등 참여

- 미국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주주 이익을 장기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중시'
  "universal owner(shareholder) as stakeholder"
  – 전 국민이 연기금과 펀드를 통해 사실상 전 상장기업을 소유·지배

- 한국의 관점 : '이익공유제' '노동이사제' 논의의 의미

미 재계(BRT)의 생각

- 미국의 200대 대기업 모임인 'Business Round Table' 2019년 8월 선언

  -애플의 팀 쿡,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등 181명 서명

  "기업의 목적을 변경해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단일 문구를 삭제한다."

  -새로운 5개 목적 제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 △종업원에게 투자

  △협력업체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우 △지역사회를 지원

  △주주를 위해 장기적 가치를 창출

→ 일부 언론, "주주자본주의가 종언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개막"

→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한 주주자본주의의 새 지평

BUSINESS

The New York Times

Shareholder Value Is No Longer Everything, Top C.E.O.s S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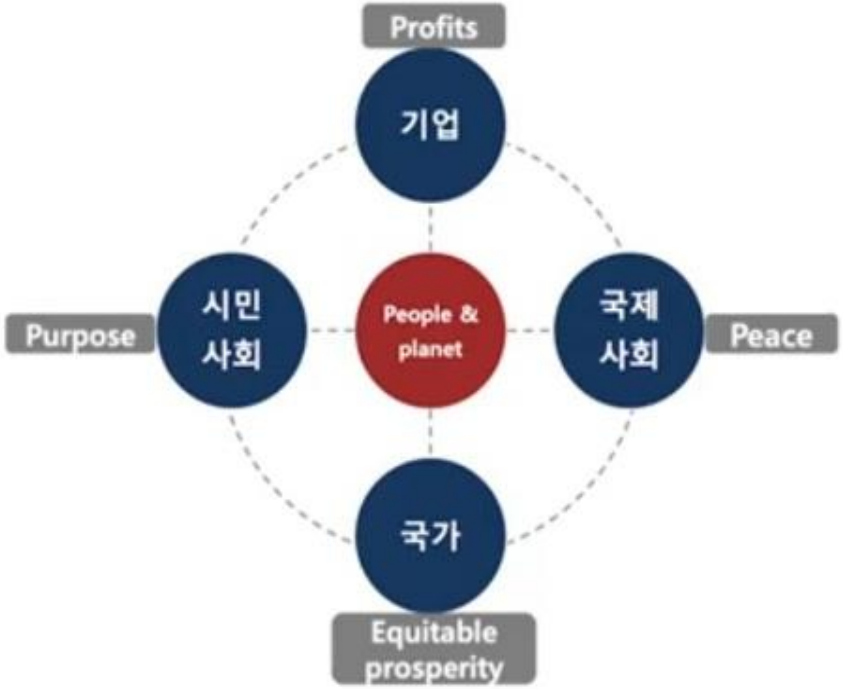
Chief executives from the Business Roundtable, including the leaders of Apple and JPMorgan Chase, argued that companies must also invest in employees and deliver value to customers.

Chief executives who are members of the Business Roundtable, include, left to right, front row: Julie Sweet of Accenture North

파이 ‘키우기’냐 ‘나누기’냐?

Schwab 교수의 Stakeholder Capitalism

People
Planet
Prosperity



<2020년 Schwab의 이해관계자모형의 컨셉>

워런 버핏의 생각

-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 ‘자선사업가‘

- ESG투자에 대한 FT의 질문에(2020년 1월)

  “이것은 주주의 돈이다“

  “나도 파리협약에 동조하지만, 정유회사 투자를 멈출 순 없다“

  “사회문제 해결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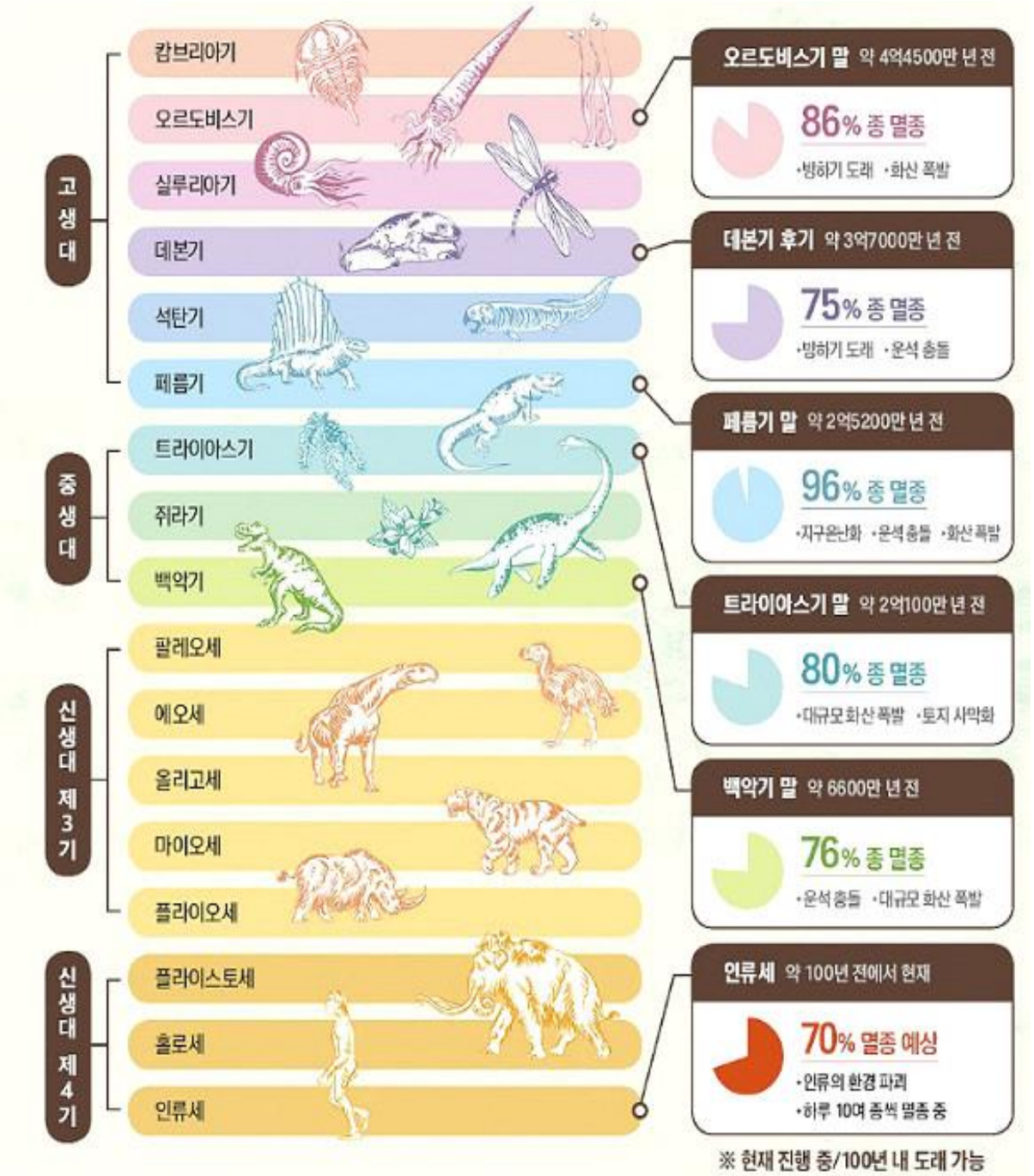
  “환경·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

→경직된 ESG 논의에 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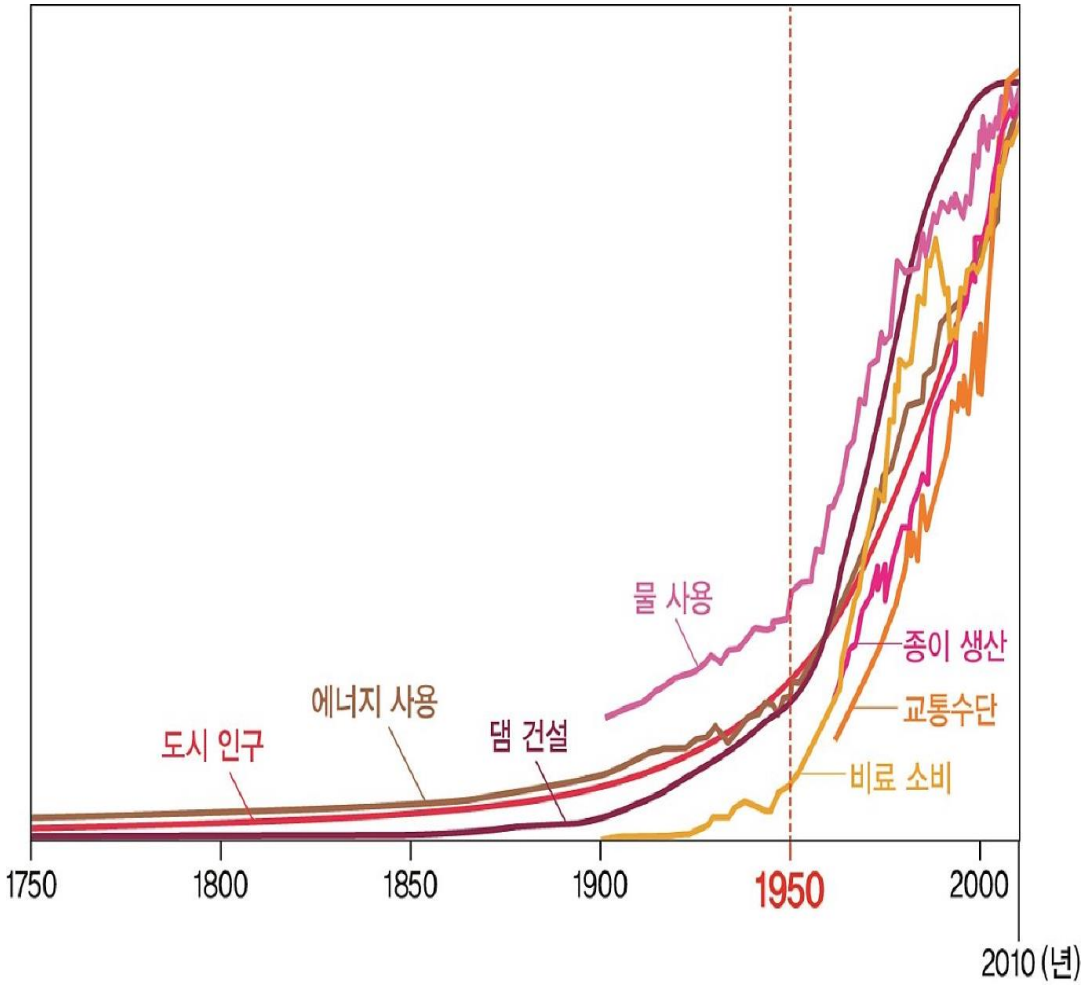
E(환경)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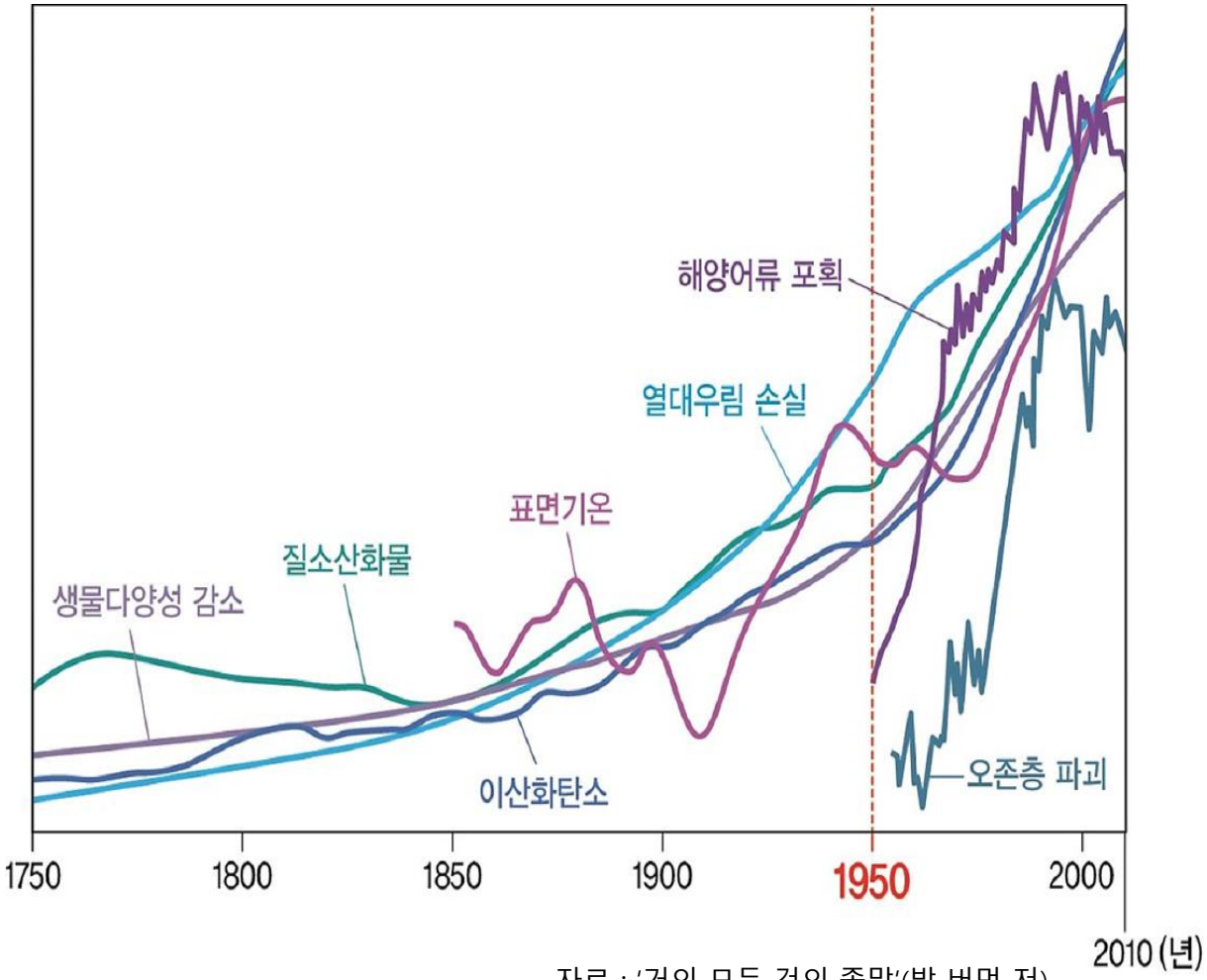
- 뜨거워지는 지구
- 빈발하는 기후재난
- 대멸종 경고

1만1700년 전~
인류 축복의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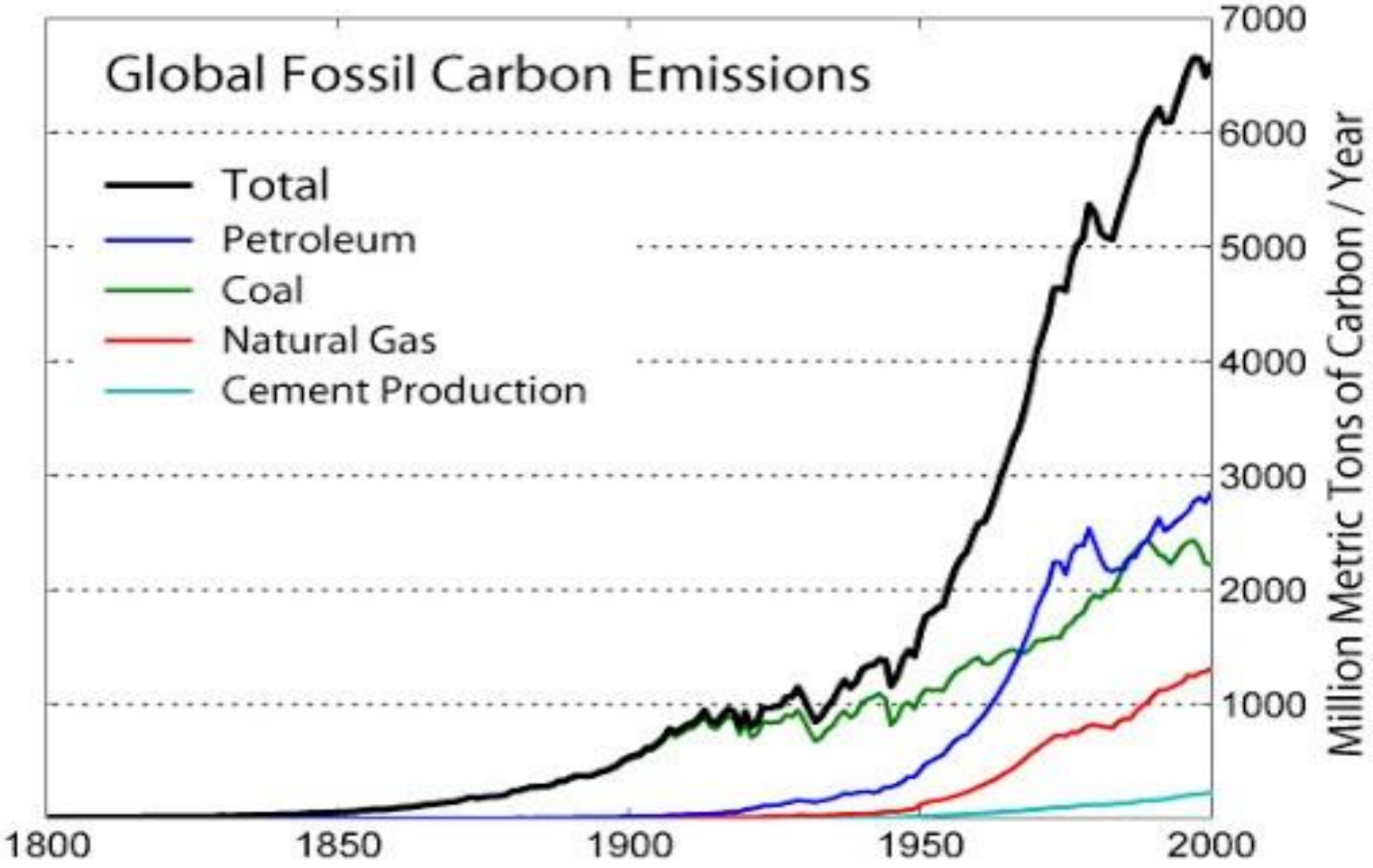
인류세의 지구





자료 : '거의 모든 것의 종말'(밥 버먼 저)

세계의 산업별 탄소 배출


Global Fossil Carbon Emissions
Total
Petroleum
Coal
Natural Gas
Cement Production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Million Metric Tons of Carbon / Year
1800
1850
1900
1950
2000

⑤ 인간이 지구를 살린다?

-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 1997년, 도쿄의정서 채택(37개 선진국)
- 2015년, 파리협약 체결 (195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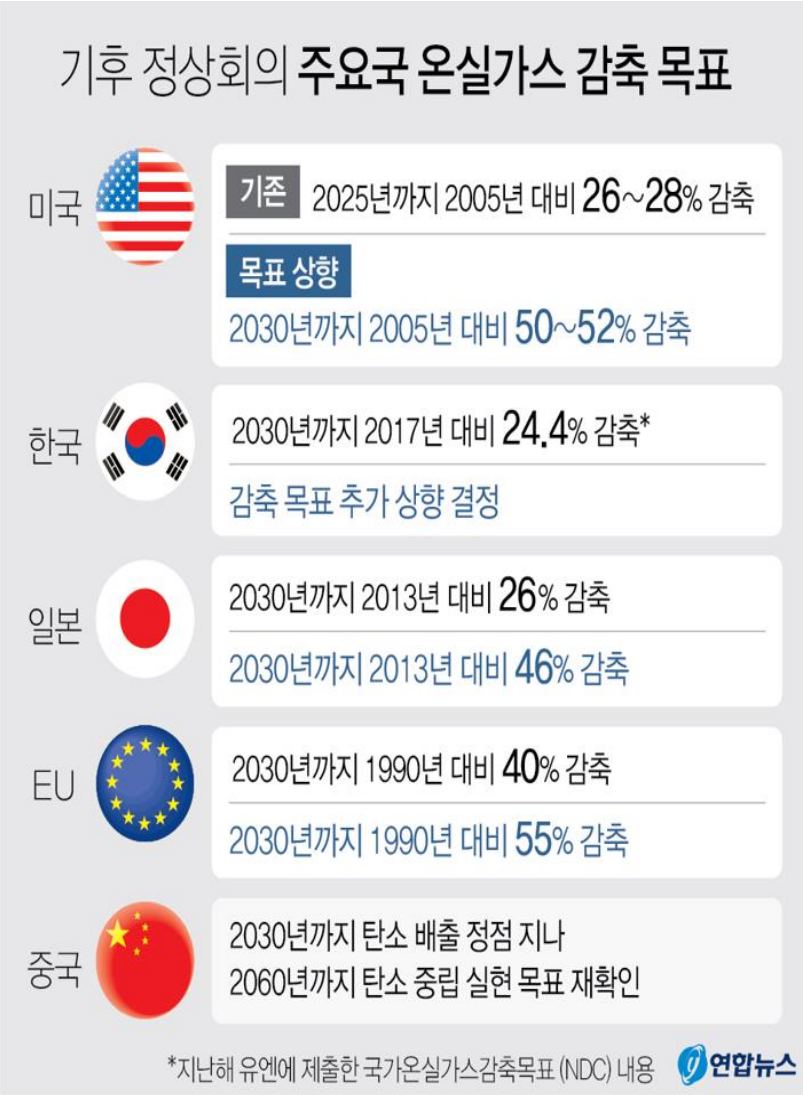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1.5℃ 이내 억제"

- 2019년, EU 2050년 '넷제로' 선언
- 2020년, 한국 등 넷제로 동참

- 2021년, 4월 미국 주도 기후정상회의 개최

  11월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인간이 자멸해 사라질 따름"



S(사회) 이슈

- 사회 양극화의 심화
- 자산과 소득의 편중
- 일자리 부족 만성화
- 계층 상승 사다리 붕괴
- 저소득층과 MZ세대의 분노
- "사회가 무너지면,기업도 죽는다"

➔'기업시민'으로서 위기과 책임의식

2009년 월가점령시위

G(거버넌스) 이슈

- 기업이 ‘E’와 ‘S’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시스템

- 미국 등 선진국에선 전문경영인의 ‘대리인 문제’ 에 초점

- 한국에선 ‘지배주주의 전횡’ 차단에 초점
  →재벌 3~4세 경영 이후 지배구조 숙제

-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주주제안과 의결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ESG 정보의 공개·측정·평가

- 정부와 투자자들의 ESG 비재무 지표 공개 요구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다"

- '지속가능보고서' 형태의 자발적 공개
  → 의무화·표준화 세계적 추세

- 유럽 등 선진국 이미 부분적 시행 돌입

- 한국은 2025년 대기업, 2030년 전 상장기업 공시 의무화

정보공개 가이던스

- GRI(Global Report Initiative)
  -2000년 최초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ESG 보고 표준

- SASB(Sustainable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 회계기준 위원회
  -2011년 설립, 미 SEC에 보고할 비재무 공시 표준 제시
  -GRI 다음으로 널리 채택, 1만5000여 기업 활용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기후변화가 기업 재무에 미칠 영향을 공개하는 권고안 제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이 설립한 FSB(금융안정위원회)가 2015년 발족
  -세계 77개국 1700개 기관이 채택. 영국·스위스 등 의무화 추진
  -환경부와 한국거래소, 금융지주회사들, SK, 포스코 등도 채택

ESG 회계 표준화 움직임

-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이 주도

- 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올 9월까지 ESG회계표준안 마련, 11월 COP26 회의에 제출 계획

 -“각종 ESG 정보공개 기준을 참고하되, TCFD에 중점을 두겠다“

- 일반 회계 처럼 ESG정보도 ‘계량화· 화폐화’의 길 열릴 듯

- ESG 정보공시 관련 기업의 부담 한결 가벼워질 전망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에 제시된 12개 항목에 대한 21개의 권고공개지표 목록

구분	항목	지표	비고
조직	ESG 대응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의 파악/관리와 관련한 경영진의 역할
	ESG 평가	ESG 위험 및 기회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의 ESG 프로세스 참여방식
환경	온실가스배출	직접 배출량 (Scope1)	회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물리적 장치나 공장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간접 배출량 (Scope2)	회사 소비용으로 매입 또는 획득한 전기, 냉난방 및 증기배출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사용	직접 에너지 사용량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의 에너지 소비량
		간접 에너지 사용량	판매제품의 사용 및 폐기처리 등 조직 밖에서 소비된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사용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
	물사용	물 사용 총량	조직의 물 사용 총량
	폐기물배출	폐기물 배출 총량	매립, 재활용 등 처리 방법별로 폐기물의 총 중량
	법규위반·사고	환경 법규위반·사고	환경 법규 위반·환경 관련 사고 건수 및 조치 내용
사회	임직원현황	평등 및 다양성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 현황, 차별 관련 제재 건수 및 조치 내용
		신규고용 및 이직	신규 고용 근로자 및 이직 근로자 현황
		청년인턴 채용	청년인턴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비율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 임직원 현황
	안전·보건	산업재해	업무상 사망, 부상 및 질병 건수 및 조치 내용
		제품안전	제품 리콜(수거, 파기, 회수, 시정조치 등) 건수 및 조치내용
		표시·광고	표시·광고 규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공정경쟁	공정경쟁·시장지배적지위남용	내부거래·하도급거래·가맹사업·대리점거래 관련 법규 위반 건수 및 조치내용

자료: 한국거래소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신한금융투자

⑥ ESG평가는 믿을 만 한가?

- ESG '큰 場' 서자 ESG평가에 기업들 민감

- 돈되는 시장 판단, 전 세계 약 600개 평가기관 등장
  -글로벌시장 MSCI, 블룸버그, 다우존스 등이 주도
  -국내시장 한국기업재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3강 체계
  지속가능발전소, 한국ESG평가원 등 후발 주자로 가세

- 평가기준 '블랙 박스', 기관 따라 평가등급 천차만별

- 데이터 수집 허점 많고, 항목별 평가 가중치도 제각각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정부 각 부처 제출 정보에 의존
  -대부분 관련 정보의 발생 시점에서 최종 평가 시점까지 2년이 시차 발생
  -최근엔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활용 평가기관까지 등장, 리얼타임 평가점수 발표

ESG 평가의 세계

- 현 상황에선 기업의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고득점 가능

  -세부 평가항목 중 기업의 조직편성, 개선의지, 정보공개 노력 등에 고득점

  -일부 평가기관들은 컨설팅 업무를 병행해 사실상 답안 알려줘

  -국내 100대 재무성과 우수 기업과 100대 ESG평가 우수 기업이 거의 일치하는 이유

- ‘국영수’ 점수(재무지표)와 ‘바른생활’ 평가(비재무)의 차이

  -바른생활 평가는 학생의 태도와 선생님의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그러려니 하고 경청·참고만 하는 게 상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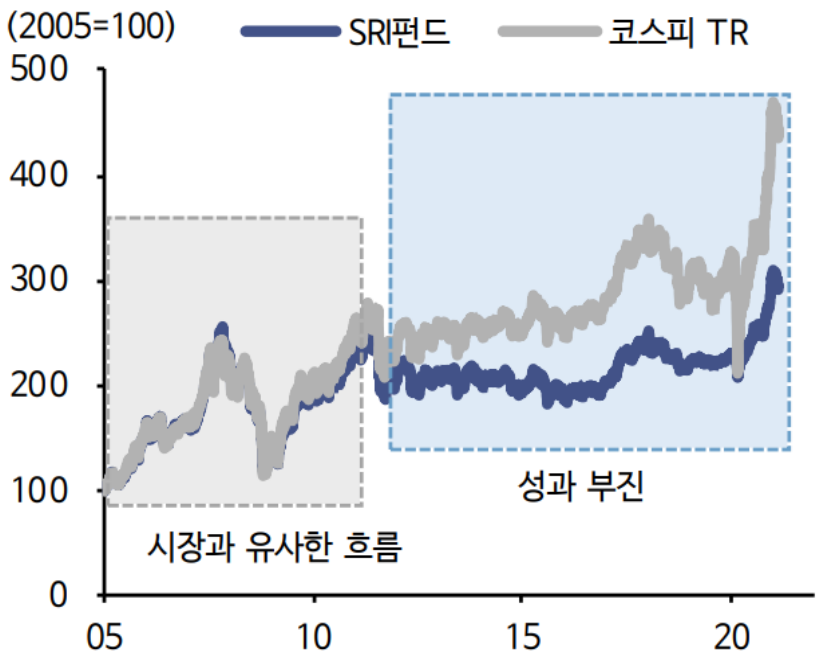
➔ESG정보 의무화·표준화 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문제

▪ ESG 평가 세부 지표(예시)

구분	이슈	평가지표					
환경(14)	기후변화	온실가스관리시스템	탄소배출량	에너지소비량	생물다양성 보호		
	청정생산, 순환경제	청정생산·순환경제관리시스템	용수 사용량	화학물질 사용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친환경 제품 개발	친환경제품 개발 활동	친환경 특허	친환경 제품 인증	환경 정보 공개	제품 환경성 개선	
사회(23)	인적자원관리	고용(공정성, 비정규직 등)	노동관행(인권문구 포함)	평등(임원 성별 비율)	인턴채용 및 정규직 전환 비율	급여 및 복리후생 제도	근속연수
	산업안전	보건안전시스템	안전보건시스템 인증	산업재해 현황			
	하도급거래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	거래대상선정 프로세스	하도급법 위반	협력업체지원		
	공정경쟁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공정경쟁 저해행위				
	제품안전	제품안전경영 제도	제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리콜 건수 및 조치내용			
	사회기여	기부금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기여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기업정보 공개				
지배구조(23)	지속성장 관련	신성장동력 확보 혁신 역량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채널 구축				
	최고경영자 관련	ESG경영의지와 역량	CEO 승계정책 설치 및 운영				
	주주의 권리	경영권 보호장치	주주의견 수렴장치	주주총회 공시시기			
	이사회구성과 활동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 분리	이사회구조의 독립성	사외이사 구성현황	이사회 활동	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사보수 정책 적정성
	감사제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장기 재직 감사/감사위원 비중	감사용역 비용 대비 비감사용역 비용			
	관계사 위험	순자산 대비 관계사 우발채무 비중	관계사 매출 거래 비중	관계사 매입 거래 비중			
	배당	중간/분기 배당근거 마련	총주주수익률	최근3년내 배당 지급	과소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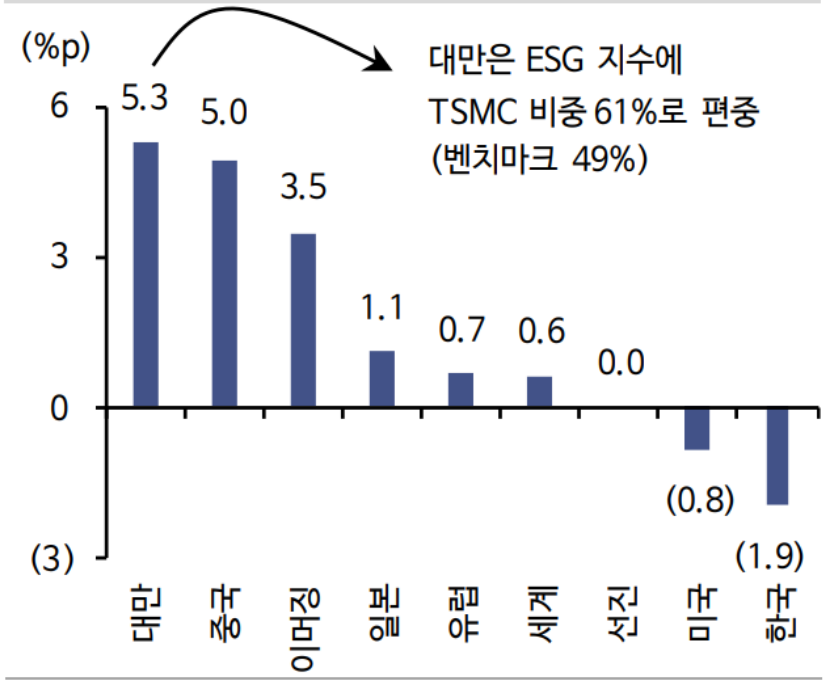
⑦ ESG경영 잘 하면 주가 오른다?

SRI 및 펀드와 코스피 총수익지수 추이



자료: FnGuide, 신한금융투자
주: SRI펀드 유형 평균 지수 기준

MSCI 지역/국가별 ESG Leaders 초과성과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주: 2007년 8월~2021년 2월

➔ "아직 상관관계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의 대응

- ESG를 '내재화' 하자

 -오너와 CEO, 이사회가 함께하는 '진정성' 있는 실행

 -구매에서 생산, 판매와 배송, 폐기물 회수까지 비즈니스 전 과정에 접목, 전사적 역량 활용

 -브랜드에 ESG 가치를 담아라

 -직원들은 우리 회사 ESG를 다 안다. 답은 안에 있다

 -밖에서 '정답' 찾지 말고, 직원들과 소통하라. 성과에 보상하라

- 가짜(워싱) ESG는 큰 화로 돌아온다

 -모르던지, 자신 없으면 하지 마라

- 시간을 걸리겠지만 ESG경영을 하면 결국 소비자에 사랑받는 좋은 회사가 되고,
  종업원의 자부심이 올라가고, 회사 수익도 결국 좋아진다는 확신을 갖자

기업의 ESG 실행 단계

단계	Dark ESG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Beyond ESG
키워드	장식/세탁 Decoration/Washing	인지 Recognition	진단 후 개선 Diagnosis/Improving	전환 Transform	내재화 Internalization	혁신 Innovation	재생, 재건 regeneration
상태	ESG 경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할 생각이 없음	ESG 경영을 제대로 인지/인식함	ESG 현황진단 후 ESG 리스크, 문제를 개선하는데 중점	ESG 경영을 기업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비즈니스 전환 선언	ESG 경영이 기업전체와 구성원 개개인의 실제 업무 현장에서 실현됨	ESG 경영이 개별기업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로 확산, 전환됨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ESG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가치사슬 외부의 ESG 문제도 개선, 해결됨
활동	홍보, 언론 플레이, 거짓/과장된 ESG 보고 ESG 평가 대행사 맡김	ESG 경영에 대한 공부, 교육, 학습 진행, ESG 경영 글로벌 가이드 라인 이해	ESG 경영 현황진단, 개선목표수립, 실행체계 구축, 구체적인 개선활동 실행	리더의 ESG 전환선언, 기업 비전/미션 변경, 비즈니스와 ESG 경영 목표, 전략, 실행체계 통합	탑 다운 방식의 ESG 경영이 아닌 바텀 업 방식의 ESG 경영실행, 실무부서 자체의 개선	ESG 경영혁신을 위한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기업간 협력, 공동의 ESG 목표 수립과 실행, 더 높은 단계 추구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사슬을 넘어선 ESG 문제해결을 실행,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추구
ESG 담당 실무자 할 일	장식과 세탁을 잘해주는 대행사를 찾던지, 윗사람을 설득하던지, 다른 부서로 옮기던지, 회사를 떠나던지...	ESG 학습 진행과 사내 전파, ESG 글로벌 가이드 라인을 전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관건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ESG 리스크, 개선과제 잘 찾고 실무부서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함, 실무부서 설득이 관건	비즈니스와 ESG 비전/미션, 경영목표, 전략, 실행체계 통합 작업을 진행함, 제대로 된 벤치마킹 모델을 찾는 것이 관건	실무부서에서 제시된 ESG 경영 개선 과제를 잘 취합하고 통합해서 기업경영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함, 전략적 통합이 관건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이해관계자들과 더 높은 단계와 목표를 위한 협의와 협력 실행, ESG 경영 혁신가 정체성 확보	ESG 경영 혁신가로 활동, 다른 기업에게 영향을 주고 재생, 재건 단계의 기업들과 협력체계 구축, 지속확대 추구

자료:이노소셜랩

감사합니다

Q&A